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10-1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11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18-23

형제 여러분, 18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1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22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3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

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1-23

1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12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18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20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21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22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공지사항

■ 2구역 모임: 7월 19일 (주일) 성당

■ 우리 공동체 7월 축일자 :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심채은 (에스텔, 7/1), 김은경 (파울리나, 7/9), Brent Smith (실라스, 7/13), 이지향 (다니엘, 7/21), 조윤 (다니엘, 7/21), 김명임 (마리아 막달레나, 7/22), 김성숙 (마리아 막달레나, 7/22), 최정자 (안나, 7/23), 최지나 (안나, 7/23), 김형연 (크리스티나, 7/24), 남윤경 (크리스티나, 7/24), 류재성 (대 야고보, 7/25), Kenneth Casey (크리스토퍼, 7/25) * 당일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07/05/2026)

■ 미사 봉헌금: \$516.00

■ 교무금: 김세동 (6), 남경덕 (1-6), 남윤경 (1-6), 남현욱 (1-6), 김영애 (6), 신창식 (7), 이상진 (7-8), 이영순 (7), 장선애 (7-8), 정소훈 (7), 최교균 (7-8), 최정자 (7), 장재원 (7), 서병욱 (IU)

July 12, 2026 연중 제 15 주일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로마 8,18).

I consider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as nothing compared with the glory
to be revealed for us(Rm 8,18).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성 당 : 753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 (317) 542-0863 (문자메시지 가능하며, 선호합니다)
- 홈페이지 : indykc.org | 이메일 : indykcckorea@gmail.com
- 사제관 : 755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사목회장 : 공성현 니콜라오 | 담당신부 : 김병조 베드로
- 주일미사 일요일 오전 11시

■ 전례 봉사자

	연중 제15주일(7/12)	연중 제16주일(7/19)	연중 제17주일(7/26)
해설	황현성 요셉	김성숙 M.막달레나	정석훈 마태오
독서	김세동 황정국	최아영 조윤경	황현성 손안세
복사	황시윤 바오로 차루아 가브리엘	박한준 라파엘 엄유상 바오로	이하은 레베카 류지수 엘리사벳
반주	한혜경 아녜스	공승윤 수산나	최아영 아녜스
제대	공승윤 수산나	안소희 클로틸다	조윤경 로사
예물	엄유상 이지성	류지안 남고은	엄유상 엄유하